모바일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캐릭터 육성하고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6월20일 출시

카카오게임즈는 사이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6월20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을 육성하고,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지난해 2월 일본에서 출시 후 약 1년이 지난 올 4월 기준 1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트위터 세계 트렌드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모은 화제작이다.

독창적 콘셉트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 전개가 게임의 대표적 특징이다. 고품질 카툰 랜더링 그래픽과 자유로운 육성 전략을 통해 완성된 입체감 넘치는 캐릭터들도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국내 출시를 기념해 등장 캐릭터를 담당한 출연자들의 축하 영상을 공개했다.

'2022 e스포츠 대학리그' 참가자 모집 하스스톤·피파·LoL 3종목 상금 확대

전국 최강 e스포츠 대학을 가리는 '2022 e스포츠 대학리그'가 수도권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대학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아마추어 e스포츠 기반을 확대하고 대학생에게 산업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e스포츠 대학리그는 몇 가지 변화를 준다. 먼저 종목을 재편했다. '하스스톤', '피파온라인4', '리그오브레전드'(LoL) 총 3종목이다. 대회 구조는 권역별 본선과 전국 결선으로 간소화했다. 전국 e스포츠 경기장과 협력도 강화했다. 협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지역 e스포츠 경기장에서 전국 결선을 순환 개최하기로 했다. 상금 규모도 총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2022 e스포츠 대학리그는 권역별 본선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하고, 각 권역별 대학 대표들이 맞붙는 전국 결선은 8월27일과 28일에 연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 | 2년 만에 유관중으로 열린 'LoL 국제대회' 성료

29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결승에서 4000여 명의 e스포츠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벡스코 달군 'MSI' 결승…4000명이 즐겼다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경기를) 온라인으로만 보다 현장에 와서 보니 행복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유관중으로 치러진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 국제 대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29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결승이 4000여 명의 e스포츠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LoL 리그 스프링 우승 팀이 한 자리에 모여 겨루는 대회다. 이날 한국(LCK) 대표인 T1은 아쉽게 중국(LPL) 대표 로얄 네버 기브업(RNG)에 2 대 3으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스타 플레이어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은 오랜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린 e스포츠 축제에 열광했다.

"기다렸던 직관" e스포츠팬 열광
한국 T1, 중국 RNG에 2-3 석패
T1 출전 전경기 전석 매진 기록
페이커 "부족한 부분 알게 됐다"

●4000여 팬 T1 응원

이번 MSI의 의미는 남달랐다. 2019년 유럽에서 열린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 이후 2년 만에 유관중으로 진행된 국제대회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e스포츠의 성지인 부산에서 열려 더 큰 관심이 모아졌다. 경기 결과는 아쉽게 나왔지만, 벡스코에 마련된 경기장을 가득 메운 e스포츠팬들은 친구, 연인과 함께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가족 단위로 경기를 보러 온 팬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T1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람한 박준이(18)군은 "6~7년 전부터 T1의 팬이고, '페이커'를 특히 좋아한다"면서 "이번 (결승) 경기는 한국 팬들만 모여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식도 들고, 다같이 행복한 거 같다"고 말했다. 박군과 함께 경기를 본 김난숙(49)씨는 "다른 지역(전북)에 사는데 아들이 좋아해서 보러왔다"며 "근데 보다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함께해서 기분 좋다"고 말했다.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치른 그룹 스테이지와 벡스코에서 열린 준결승, 결승전에서 T1이 출전한 모든 경기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T1 분패는 아쉬움

홈 관중의 일방적 응원을 받은 T1의 분패는 아쉬웠다. T1은 LCK 스프링 정규 리그와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모두 승리하는 '전승 신화'로 이번 MSI에 출전했다. MSI에서도 그룹 스테이지에서 6전 전승을 기록했고, 28일 열린 준결승전에선 '천적' G2 e스포츠(LEC)를 3 대 0으로 깔끔하게 제압하면서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린 터라 더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결승에서도 RNG와 물고 물리는 접전을 펼쳤다.

MSI에서 LCK 대표가 우승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 첫 대회인 2015년에는 T1(당시 SK텔레콤 T1)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T1이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후 킹존 드래곤X와 담원 기아가 준우승을 했지만, 정상에 서지는 못했다.

'페이커' 이상혁은 "패배하고 나니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됐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머와 롤드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LCK 서머는 6월15일 막을 올린다.

한편, RNG는 사상 첫 MSI 통산 3회 우승 고지를 밟았다. 다만 중국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해 결승 현장에서 우승팀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산 |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최근 정식 명칭을 공개한 '프라시아 전기'(위)와 '베일드 엑스퍼트'. 사진제공 | 넥슨

베일 벗은 넥슨 신작…출시 준비 가속

대형 MMORPG 티저 영상 공개
3인칭 슈팅게임 정식 명칭 확정

넥슨이 다양한 플랫폼의 신작 게임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프로젝트 ER'의 정식 명칭을 '프라시아 전기'로 확정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프라시아 전기는 신규 지적재산권(IP) 기반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대규모 전투를 핵심 콘텐츠로 한다.

넥슨은 PC 게임 '프로젝트 D'의 정식 명칭도 '베일드 엑스퍼트'로 확정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투 환경에서 5 대 5로 나뉘어 싸우는 3인칭 슈팅 게임이다. 넥슨은 베일드 엑스퍼트의 글로벌 베타 테스트를 6월9일부터 26일까지 스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넥슨은 또 인기 IP '히트'의 세계관을 잇는 MMORPG '히트2'의 티저 사이트를 열고 신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 세계 8억5000만 명의 글로벌 팬덤을 갖춘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한 대전 격투 게임 'DNF Duel'은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6월28일 PC 및 콘솔 플랫폼을 통해 정식 출시 예정이다.

한편, 넥슨은 신작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PC, 콘솔에 이어 모바일 플랫폼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기 IP '카트라이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개발 중인 차세대 멀티 플랫폼 레이싱 게임이다.

김명근 기자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3				6	9	
2			4	1				5
9					5			2
		9		4			6	
	3		1		6		5	
	1			2		9		
8			6					9
1				3	8			4
	9	7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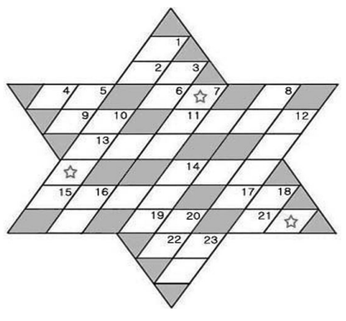
		1		5		6		
8			3		2			7
	4		8		6		5	
	1	9				3	7	
5								4
	2	3				5	9	
	6		1		9		2	
2			5		3			9
		5		8		4		

■ 스도쿠정답

6	1	8	4	5	2	7	9	3
4	2	7	8	3	9	6	5	1
9	5	3	6	7	1	2	4	8
7	4	2	5	8	3	9	1	6
3	6	1	7	9	4	5	8	2
5	9	4	2	6	8	1	3	7
2	7	6	1	9	5	3	4	8
1	8	5	3	4	7	9	2	6
9	3	1	7	5	4	8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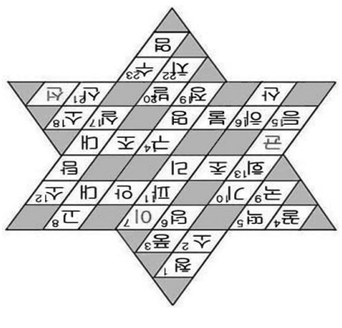
1	9	5	2	8	7	4	3	6
2	7	4	5	6	3	8	1	9
3	6	8	1	4	9	7	2	5
4	2	3	6	7	8	5	9	1
5	8	7	9	3	1	2	6	4
6	1	9	4	2	5	3	7	8
7	4	2	8	1	6	9	5	3
8	5	6	3	9	2	1	4	7
9	3	1	7	5	4	8	6	2

■낱말문제



■가로 열쇠 02.학교에서 자연관찰, 역사 유적 견학을 갔다 오는 일. 04.음식물을 목구멍으로 단번에 삼키는 소리. 06.작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09.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국민성을 상징하도록 정한 기(旗). 11.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활짝 웃음. 13.벌로 때릴 때나 마소를 부릴 때 쓰는 가늘고 긴 나뭇가지. 14.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사람이나 물건을 구해 내는 데에 쓰는 긴 부대. 15.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 17.어이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 19.머리를 잘 매만져 다듬음. 21.과일, 생선 따위가 생기가 있어 싱싱함. 22.수리 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음.

■세로 열쇠 01.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03.크고 무거운 물건이 깊은 물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05.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넣고 끓인 음식. 07.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낱 잎. 08.몹시 기다림. 10.차별 없이 고르게 기회를 주는 일. 12.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14.바다에서 사고 선박을 버리고 탈출할 때 사용하기 위한 보트. 16.산에서 내려감. 18.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 20.이를 뽑음. 23.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턱에 나는 털.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스타의 이름이 됩니다.